

9

기쁜 소식을 전한 문둥병자

열왕기하 6:24~7:20

네 명의 문둥병자는 사마리아 성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고,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람 군대가 도망간 곳에서 많은 의복과 식량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다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안에는 먹을 것이 귀해서 값이 아주 비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의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내일 이맘때에는 곡식 값이 아주 싸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의 한 장관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어서 곡식이 쏟아지게 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장관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네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겠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성문을 드나드는 곳 앞에는 네 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람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람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성경 암송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로마서 10:15)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수많은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로
아람 군대를 도망가게 한 후였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금, 은, 의복
그리고 많은 식량을 남겨둔 채 도망가 버렸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아람 사람들이 놓고 간 물건들을 감추다가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옳지 못하구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만일 밝은 아침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을 받을 것이다.”

네 명의 문둥병자는 사마리아성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고, 사마리아 성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람 군대가 도망간 곳에서 많은 의복과 식량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곡식이 풍성해져서 값이 아주 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여호람의 장관은 성문을 지키고 서 있다가 백성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사마리아의 굴주림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성을 에워싸자 성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름다운 소식

가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어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별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열왕기하 7:9)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위의 말씀에서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만약 성안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명의 문둥병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성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성안의 사람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자들의 이어 (로마서 10:15)



예 화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잘하여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테네의 어떤 건물을 건축하는데 두 사람의 건축가가 지원을 했습니다.

한 건축가는 청중들에게 건물을 짓는 다양한 방법과 그 건물을 어떻게 아름답게 지을 것인지 열심히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축가는 그 방법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하고 바로 건축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그 건축가는 즉시 그 건물의 건축을 맡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행함으로 전하는 사람은 복음에 관해 말만 하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입니다.

직접 주변의 사람을 만나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난

선생님난